7천여 불자, 보살계로 불자 거듭나다

범어사, 124회 보살계 수계산림
수불 스님 전계대화상 증명으로
1박2일간 정근·법문 등 이어져
방장 정여 스님 직접 휘호 전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수불 스님을 비롯한 3사7증사스님들이 보살계 수계산림을 진행하고 있다.

불자의 실천 덕목인 보살계 수계산림이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에서 봉행됐다. 범어사 보살계는 124년 동안 이어져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번 수계산림에는 부산 및 경남 일대에서 7000여 불자들이 동참해 도량을 메웠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보제루 내 금강계단에서 '제124회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보살계 수계산림은 범석 수불 율사가 전계대화상을 맡았으며 금곡 화봉 율사, 산현 원창 율사가 갈마아사리와 교수아사리를 담당했다. 존증아사리는 정오, 일광, 혜진, 공마, 용학, 목종, 도경 스님이 7증사로 계단을 증명했다. 유나는 효천 스님, 인례는 심우 스님이 맡았다.

1박 2일간 진행된 수계산림은 천수다라니와 노사나불정근, 심지법문 및 축원, 보살계법문이 이어졌으며 수계식 및 계첩 수여로 마무리됐다.

전계대화상 수불 스님은 심지법문을 통해 "부처님이 중생을 왜 제도하려 하셨는지 깊이 인지하고 교화에 앞장서야 한다.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보살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범어사는 한국불교 근현대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살계 수계를 진행했고 올해 124회째를 맞았다"며 "보살계를 받은 공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이뤄가자"고 말했다.

특히 회향식에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가 참석해 보살계를 증명한 3사7증사에게 휘호를 내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여 대종사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계단에서 계를 받는 것은 참석한 모든 대중에게 행복한 일이다. 범어사 유래로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참석해 보살계를 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치하했다.

한편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의 역사는 124년 전 시작됐다. 1901년 중국 법원사의 만하 스님의 계맥을 이은 성월 스님이 범어사에 금강계단을 개설했다. 성월 스님의 계는 일봉, 운봉, 영명, 동산 스님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동산 스님은 1826년 대은 율사가 지리산 칠불에서 서상 수계해 금담, 초의, 범해, 선곡, 용성으로 전한 칠불맥을 용성 스님으로부터 전수해 이었다. 범어사에 따르면 이렇게 두 맥을 이은 동산 스님의 계는 석암, 고산, 수불로 이어졌다.

범어사 금강계단은 칠불의 계를 이은 용성으로부터 전계한 고암 문하의 광덕, 덕명, 흥교 율사들과 동산문하의 원사들이 번갈아 전계사로 소임을 담당하고 있다.

대풍 스님, 선교종 제9대 총무원장 취임

교육원 · 승려요양병원 설립 등
종단 중흥 위한 공약도 발표



한국불교선교종 제9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대풍 범각 스님이 종단기를 받아들고 대중을 향해 흔들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선교종 제9대 총무원장 대풍 범각 스님이 취임했다.

한국불교선교종은 4월 21일 부산 호텔농심 대연회장에서 제9대 총무원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대풍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선교겸수'와 '화쟁정신'의 실천을 천명했다.

대풍 스님은 △승재가를 위한 교육원 설립 △승려의료요양병원 불사 △비구니 선원 설립 △승려 노후연금제도 도입 △종단 직영 다비장 설치 등을 약속했다. 스님은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해선 중생구제 대원력을 석가세존의 가르침을 받들어야 한다"며 "지혜와 자비로 원력을 실천하는 종단, 세상을 이롭게 하는 종단, 불교중흥의 기적을 이뤄내는 종단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선교종 종정 경보 혜만 스님은 "우리 모두 크게 마음을 돌이켜 영원한 모습으로 변함없는 옛 거울을 회광반조해 분명하게 밝히자"며 "옛 거울을 밝혀서 사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무한한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설법했다.

제7~8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도신 스님은 이임사에서 "범각 스님을 정점으로 합심 단결하고 부처님 가르침과 종정예하의 교시, 종단 원훈을 이어 받아 종단 번창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빈으로는 전 범어사 전계대화상 흥교 대종사, 한국불교종단연합회 법인관리위원장 무공 스님, 대한불교반야종 총무원장 지법 스님, 한국불교종단연합회장 성철 스님, 대한불교승가공동회장 도연 스님,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혜승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선교종 제9대 총무원장 대풍 범각 스님은 1994년 지리산 흑룡사 혜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5년 사단법인 한국불교선교종 전신인 대한불교선교종 덕성사 혜종 스님을 은사로 재출가했다. 스님은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학을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코웬대 체육교육과 석사 및 명예철학박사를 취득했다. 몽골의 몽골국립체육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 스리랑카 사이언스 승가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의료봉사단 사단법인 행복한사회를 결성해 스리랑카, 중국, 남인도 등에 학생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재난 구호활동에 앞장서 스리랑카 대통령 감사장과 네팔·티베트 평화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하늘의 지혜 붓다의 침묵〉 〈진심법문〉 〈진심법문2〉 〈불자보감〉 등이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우리 전통 느티떡, 함께 만들어요"

부산봉행위 '느티떡 전승회'



부산연등회봉행위원회(위원장 정오 스님)가 4월 18일 범어사 하후원에서 '불기 2568년 부산연등회 느티떡 전승회'를 개최했다.〈사진〉 전승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사무부총장 정수 스님과 보신 스님을 비롯해 진각종, 삼광사, 진여원, 화엄승가회 등 신행단체 및 사찰 신도들이 동참했다.

느티떡 전승을 위해 참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범어사 경내 느티나무에 올라 직접 새순을 따고, 잎을 물로 씻어 물기를 제거했다. 이후 쌀가루를 설탕과 소금으로 절인 느티잎과 골고루 비벼 베보자기를 깐 찜통 시루에 담아 쪄냈다. 완성된 느티떡은 상큼한 느티향이 고루 풍겨 담백한 풍미를 자랑했다.

사무부총장 정수 스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느티떡을 알고 그 안에 있는 불교전통문화와 우리 민족의 고유 풍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포교사단, '명상포교' 화두로 연수

부산 포교사단 상반기 연수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은 4월 20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불기 2568년 포교사단 리플레이 교육 오프라인 강좌 특강-부산지역단 상반기 분야별 연수'를 실시했다.〈사진〉

부산지역단은 매년 포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연수는 행복선 명상센터의 '명상과 치유'를 주제로 진행됐다. 연수에는 미타선원 선원장 하림 스님, 김영석 포교사단장과 송재린 부산지역단장, 홍순하 행복선 명상센터장을 비롯해 부산지역단 소속 포교사들이 동참했다.

포교사단은 명상포교를 강조하기 위해 현재 명상지도사(가칭) 1급과 2급 지도자 과정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내용은 사념처 수행을 경전에 의거해 실참하고 적용하는 명상법을 구상 중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금정구불교연합 회장 동암 스님 취임

4월 20일, 회장 이 · 취임법회



부산 금정구불교연합회는 4월 20일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금정구불교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 천태종 전 총무원장 춘광 스님, 금정구불교연합회 전 회장 고담 스님, 신임회장 동암 스님 등 승가 내빈과 백종헌 국회의원, 김재윤 금정구청장,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 등이 동참했다.〈사진〉

신임회장 동암 스님은 "고담 스님께서 앞서 이뤄놓은 빛나는 업적을 교훈으로 받들어 배움의 자세로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임회장 고담 스님은 "이렇게 무사히 이임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지지해주신 회원스님들의 협조 덕분이다. 새 회장 동암 스님이 원융무애한 소통과 화합, 불법홍포로 지역사회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인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NEW "식물성 연꽃향 양초"
오랜 시간 완벽한 배합 비율을 연구, 개발하여
2024년 향긋한 연꽃향 양초를 출시하게 되었으며, 다년간의 개발 및 연구를 통해
완성된 "식물성 연꽃향 양초"를 스님과 불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또한 신제품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는 연소시 중앙부만 연소되는 단점을 완전히 보완하여 전부 연소시킵니다.
연꽃향양초 샘플이 필요한신 분은 전화번호, 성함, 주소를 010-5265-5118로 문자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
특 大(대) 7.5Φ×41㎝ 16개 120,000원
大(대) 8.5Φ×33㎝ 20개 140,000원

식물성 연꽃향 양초
〈원기둥〉 7.4Φ×29㎝ 20개 120,000원
〈돈타레〉 5.6Φ×26㎝ 30개 105,000원
〈밀대〉 4.7Φ×24㎝ 40개 92,000원

「해광양초는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를 제조 판매합니다.」

신제품 반야심경 디퓨져
한글로 새겨진 반야심경 디퓨져는 오랜 잔향을 남기어 일상생활 속 귀한 기운을 갖게 도와줍니다.
연꽃디퓨져
연꽃디퓨져 연꽃처럼 예쁜 향기로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선사합니다.
침향디퓨져 뇌를 깨우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여 고요한 기운을 전합니다.
침향디퓨져
100㎖ 디퓨져 29,000원
200㎖ 디퓨져 39,000원

신제품 도자기 (초)받침
*기존 촛대 안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양초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고 청소가 간편합니다.
정면 구멍있는 받침 탑뷰 구멍없는 받침

NAVER 해광양초 해광산업 상담문의 010-5265-5118 / 031-333-024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416-8 (이일로 112-6)